

희토류 확보 위해 일본과 공조

박영준 지경차관, 광산개발도 협력 ... LNG 수입도 공동대응

우리나라와 일본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국내 및 제3국 광산 개발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11월26일 호소노 데츠히로 일본 자원에너지청장을 만나 “한국 정부 및 한국기업이 국내 및 제3국의 희토류 광산을 개발할 때 일본기업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지경부가 전했다.

또 양국의 희토류 광산 개발과 희토류 대체물질 및 재활용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급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호소노 청장은 최근 일본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국 실무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박영준 차관은 11월25일 히로부미 카와노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Japan Oil & Gas &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이사장을 만나서도 각종 광물자원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 정부간 협의체를 가동해 LNG 판매국에 공동 대응하고 해외 LNG 프로젝트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6>